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 알기

총 편



기획 이재분, 이미경, 강병직, 박지은, 이정희(한국교육개발원)

집필 송인섭(숙명여자대학교)
이신동(순천향대학교)
김윤수(경기도과학교육원)
서재경(서울언주중학교)
이인호(인천과학고등학교)
윤부섭(경기가평교육지원청)
황광일(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자문 및 검토 오성배(교육과학기술부)
김영산(서울특별시교육청), 곽혜주(부산광역시교육청)
정덕영(대구광역시교육청), 조용구(인천광역시교육청)
고준상(광주광역시교육청), 박미혜(대전광역시교육청)
임기복(울산광역시교육청), 김성미(경기도교육청)
방대식(강원도교육청), 이기태(충청북도교육청)
박대규(충청남도교육청), 박성배(전라북도교육청)
천조현(전라남도교육청), 천종복(경상북도교육청)
정영현(경상남도교육청), 고용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영주(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김호진(서울염창중학교)
이경학(광주일곡초등학교)
전난영(아산신광초등학교)
최해순(경기수원교육지원청)

이 자료는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위탁과제로 수입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여는글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을 기존의 시험 위주의 선발에서 교사의 관찰 및 추천을 중심으로 한 교사 관찰·추천제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2009. 6. 3). 이에 따라 교사 관찰·추천제는 2010년 시범 적용기간을 통해 시행된 바 있으며,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재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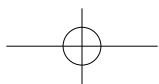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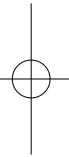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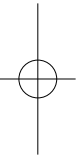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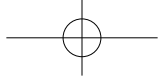
교사 관찰·추천제는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타고난 영재성 및 잠재 가능성을 지닌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교사 관찰·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은 물론이며 학생과 선생님들께서도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작한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 알기](교사·관리자 안내자료)는 교사 관찰·추천제의 추진 배경, 선발과정, 선발기준, 교사·관리자들의 실제업무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책자가 교사 관찰·추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교사 관리자분들께 널리 활용되어 교사 관찰·추천제가 영재교육 현장에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12. 1.
한국교육개발원



목 차

Part. 1 들어가기

- 1. 영재의 이해 8
- 2. 영재교육의 이해 12
- 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이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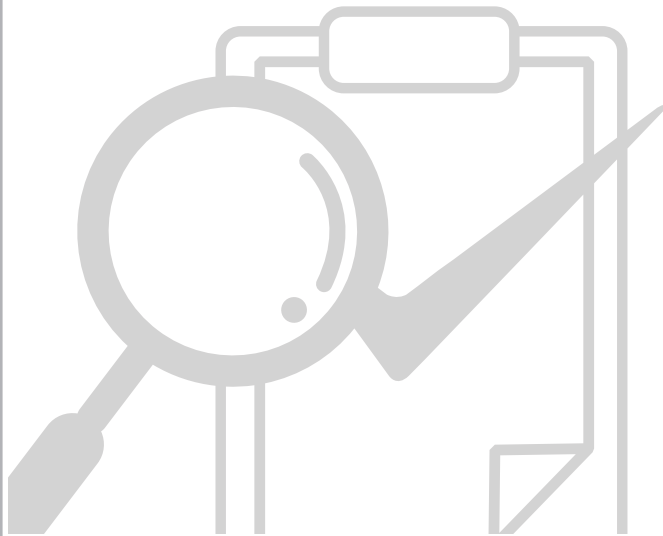
Part. 2 교사 관찰·추천제의 소개

- 1. 교사 관찰·추천제란? 20
- 2. 교사 관찰·추천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 21
- 3. 교사 관찰·추천제의 타당성 24
- 4. 해외의 교사 관찰·추천 26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29

Part. 4 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41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art. 1

들어가기

1. 영재의 이해
2. 영재교육의 이해
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이해

1. 영재의 이해

영재아이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4세에 아버지가 건네준 나침반에서 바늘이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과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시기에 그는 출중한 학생이었으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학교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방식을 싫어하여 과제를 일부러 엉망으로 하거나 잘 알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 오만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10세경에 대수학과 기하학을 접하면서 수학에 심취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과 철학서를 탐독하는 한편 찬송가를 직접 작곡하기도 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지녔다.

16세에 '자기장 내의 에테르 연구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작성하여 당시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하고 있던 가상 물질로서의 에테르를 분석하였으며, 에테르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명문인 취리히 공과대학의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말았으며 다행히 그의 뛰어난 물리학 실력이 인정되어 1년의 예비과정을 거쳐 재도전 끝에 17세에 입학하게 되었다.

26세에 그는 4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20세기까지의 고전적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으며, 30세에 자신의 모교인 취리히 대학에 교수가 되었다.

그가 제시한 물리학 이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42세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주창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성장과정은 많은 연구들에서 영재의 중요한 사례로서 다루어져 왔고, 그만큼 한 사람의 영재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시한다. '4세경에 나침반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던 점'은 영재들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과제를 일부러 엉망으로 하거나 잘 알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 오만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습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교육방식만이 아닌 영재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그리고 ‘16세에 자기장 내의 에테르 연구’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는 모습은 조숙한 능력과 함께 스스로의 관심에 대한 열정과 자기 주도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높은 지적 호기심을 지니고 통찰과 추리력이 높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 교육이나 사회 문화에 대해 반발적이거나 저항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재능이 인정되지 못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영재의 특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들의 능력이 제대로 계발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아인슈타인을 잃게 되고 말 것이며, 그 때문에 입는 국가 사회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영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 능력과 지적재산이 개인과 국가사회의 핵심적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영재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재의 특성

1) 높은 지적 호기심

- 긍정적인 행동 특성 : 정보 습득이 빠름, 호기심과 궁금함이 많음, 질문이 많음, 풍부한 양의 정보를 소유함, 다양한 책을 읽음
- 부정적 행동 특성 : 과도한 질문과 의욕이 넘쳐 지시를 따르기를 거부함, 인내심 부족, 정규 학교생활을 지루해함

2) 발달된 언어 능력

- 긍정적인 행동 특성 : 어휘력 풍부, 앞선 정보력, 유머 감각, 앞선 언어 발달, 높은 어휘수준, 책을 많이 읽음, 언어로 비판함
- 부정적 행동 특성 : 학교나 또래와 맞지 않는 언어 사용으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가 어려움, 잘난 체, 따지거나 논쟁함, 장황한 핑계를 자주 댐

| Part. 1 들어가기 |

3) 높은 창의성

- 긍정적인 행동 특성 : 상상력 풍부, 새로운 발명과 방식 추구, 독특함, 자기 해석과 스타일 추구,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내기 좋아함, 심리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풍부함
- 부정적 행동 특성 : 복잡한 규칙 설정으로 친구들이 기피함, 파괴적이거나 보조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임, 반복학습과 연습 기피, 동조하지 않음

4) 우수한 사고 능력

- 긍정적인 행동 특성 : 사고력 우수, 사고과정이 빠르고 판단력과 문제해결을 즐김, 추상화 및 종합능력 우수, 원인-결과관계 파악, 사물과 사람을 조직화시킴, 도전적, 논리적
- 부정적 행동 특성 : 단순연습 기피, 전통적 교수-학습방법 거부, 자세하거나 세부적인 것을 놓침,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 불분명하거나 비논리적인 것을 따짐, 논쟁적임

5) 높은 주의집중력

- 긍정적인 행동 특성 : 흥미 영역 지속, 복잡함 속에서도 자기 일에 몰두, 선택적 주의집중 우수, 목표지향 행동
- 부정적 행동 특성 : 허던 일을 멈추지 못함, 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 일상생활의 일들에 무관심함, 제한된 시간을 넘김, 자기 일에만 편중됨

『최신영재교육학개론』, 2009 에서 발췌함

영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

1) 영재는 모든 과목에서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영재아는 학교의 모든 과목에서 영재성을 나타내는 일반적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영재성은 영역 특수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재교육학자들은 “불균형지표(잘하고 못하는 것이 균등하지 않고 나누어 진 것)가 균형지표(모든 능력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반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예로 높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언어전락을 우수하게 사용함으로써 수학적 능력이 우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능력이 없는 언어능력의 소유자는 수학에 있어서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어린이들은 한 특별한 학문적 영역에서 영재일 수 있으나 다른 영역에서는 학습지진아일 수 있다.

2) 뛰어난 IQ를 가진 아동만이 영재아동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IQ를 가진 아동을 영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재아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특수 학문 적성이나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동들도 영재로 정의하고 있다.

3) 영재는 타고난다?

영재성의 유전 대 환경의 문제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재성을 전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 반면 일부 심리학자들은 영재성을 전적으로 노력의 결과로 본다. 두 견해 모두 부분적으로는 옳다고 볼 수 있다. 영재아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수한 능력자로 볼 수 있다.

4) 영재는 부모의 성화가 만들어낸다?

부모의 성화가 영재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부모의 성취기대의 강한 시도로 영재성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물론 어린 아이들의 영재성은 부모의 도움과 노력 없이 계발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모의 성화에 의해서 영재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종 부모들은 영재성을 파괴한다. 특히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5) 영재는 똑똑하기 때문에 사회에 잘 적응한다?

사람들은 영재아들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적응을 좀 더 잘하고 인기가 있고 행복한다고 본다. 그러나 극단적인 영재아들은 또래 친구들의 공통관심사에 흥미가 없고 그들 친구들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6) 영재는 저명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재아들이 저명하고 창조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영재아들이 저명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저명한 어른들 중에 어린 시절 조숙성이 없었던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영재의 성장 과정은 경우에 따라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려서부터의 영재가 팔목할 만한 성취를 한 경우, 둘째 어려서는 영재였으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영재, 셋째, 어려서는 평범했으나 후에 성취적인 면에서 영재성을 나타내는 대기만성형, 넷째, 발굴도 개발도 되지 않는 영재 등이다.

2. 영재교육의 이해

영재교육이란?

교육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 질문 중에 하나를 개인차에 관한 영역으로 본다. 좋건 싫건 간에 개인차는 어느 행동 특성이든 간에 존재하는 특성이며 그것이 유전적인 변인이건 환경에 의해 형성된 변인이건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같은 학생들의 개인차 수준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바로 영재교육이다.

영재교육은 ①재능이 뛰어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②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일반적으로 학교수업은 전체 학생들의 평균 수준에 맞추어 교육이 진행된다.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학교수업이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업 중에 산만하거나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기회 균등이라는 교육적 정의의 원칙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교육에서 기회균등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각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적 처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필요와 처지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권리라는 교육적 의미로부터 영재교육의 타당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원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원에는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이 있다.

1) 영재학급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반을 말하며 특별활동, 재량활동, 방과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단위학교 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인근의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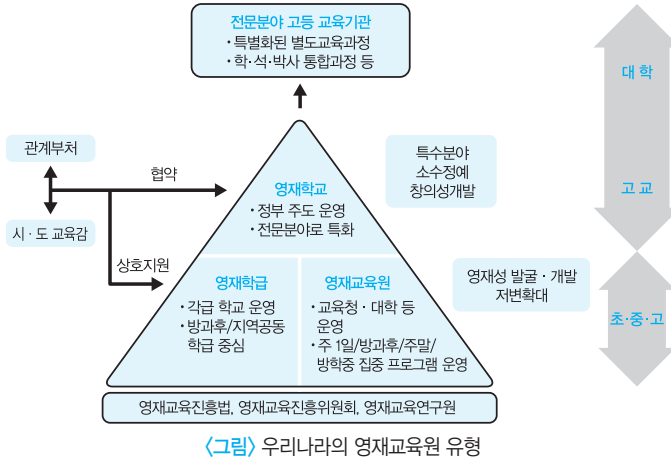
2)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은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과 대학소재 영재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으로 구분되며,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영재교육원은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방과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게 된다. 영재교육원은 특히, 학교 수업시간 중에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pull-out)'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 영재학교

전문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장 뛰어난 잠재능력을 가진 영재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급에서 운영되고 있다.

| Part. 1 들어가기 |



영재교육원 확인 (<https://ged.kedi.re.kr/xerosware> GED연동)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에서 내 지역의 영재교육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GED(Gifted Education Database)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각 시·도·교육청별 영재교육원 정보, 영재학생 정보, 영재교육 담당교원 정보, 영재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등이 정리되어 있다.

홈페이지는 <http://ged.kedi.re.kr>이며, 교사 관찰 추천을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

3.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이해

선발은 영재교육이 시작되는 관문으로서 해당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영재교육원이 어떤 기준으로 영재를 판단하는가의 문제는 선발하려는 기관의 영재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영재교육을 어떻게 하려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좌표이다.

기본 개념

1) 영재성의 출현분야

영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 1항에서는 영재성이 출현하는 분야를 '일반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영재교육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당해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

1. 일반지능
2. 특수 학문 적성
3. 창의적 사고 능력
4. 예술적 재능
5. 신체적 재능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 Part. 1 들어가기 |

2) '영재'와 '영재교육대상자'의 차이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와 '영재교육대상자'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재'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 사회나 해당 영역에서 재능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제2조)이며, '영재교육대상자'는 각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영역과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제5조), 즉 해당교육기관의 선발과정을 통과하여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자이다.

3) '판별'과 '선발'

영재의 판별은 어떤 아이가 영재성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그 기관의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 영재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가 자녀의 영재성 여부가 궁금하여 어떤 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아이의 영재성 판별을 의뢰한 것이다. 반면, ○○영재교육원에서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을 뽑는 것은 선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별과 선발이 실제 현실에서 뚜렷이 분리되는 다른 과정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원에서의 선발은 영재의 판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발의 목적

어떤 학생이 영재인지 아닌지, 혹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선발의 목적인 것은 아니다. 선발의 목적은 선발과정을 통해 학생의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능력과 개성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가 드러나게 하는 과정일수록 좋다.

선발의 원칙

1) 선발과정은 해당 영재교육원의 교육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선발은 교육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표와 교육에서 제공할 내용들이 선발과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선발과정에서 상위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하위그룹으로 평가된다면,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선발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 2)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도구로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영재의 잠재성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동기나 호기심 등 정의적 측면을 다양하게 관찰할 때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 3) 선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되어 항상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4) 선발은 대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영재성은 개인에 따라 그 수준이나 발달정도가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영재성의 수준, 발달단계와 연령 등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5) 선발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적절하게 선발되고 있는지 매년 평가되어야 한다. 외부전문가와 함께 선발과정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차후 선발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법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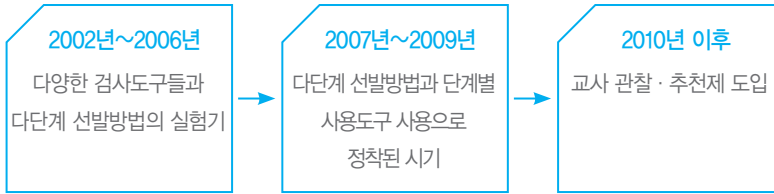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법의 변천은 제1차 영재교육종합계획이 시행된 200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역사로 볼 때, 크게 세 시기를 거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다양한 검사도구들과 다단계 선발방법의 실험기'로서, 추천, 정의적 특성 검사, 논리적 사고력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IQ, 학교성적 등 다양한 검사들이 사용되었고, 선발단계 역시 1-2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들이 실험되었다.

두 번째 시기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다단계 선발방법과 단계별 사용도구들이 기관마다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로,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영재성 검사와 학문적성 검사라는 새로운 검사 도구가 개발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급, 실시된 시기이다.

| Part. 1 들어가기 |

세 번째 시기인 2010년 이후는 교사 관찰·추천제의 도입으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교사 관찰 추천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의 장기 관찰과 이를 토대로 한 추천에 의해서만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6월 영재교육대상자선발에서 교사 관찰·추천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06.03).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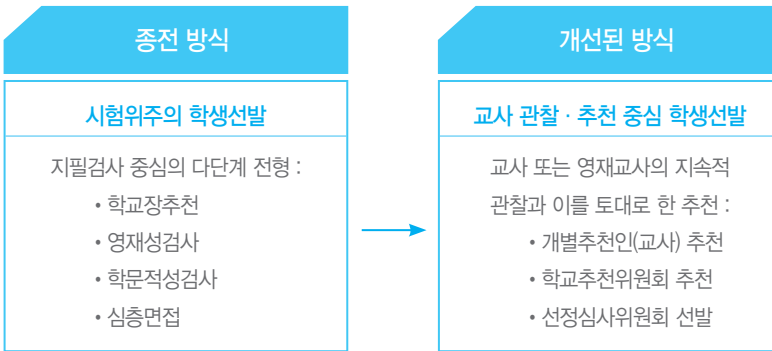
교사 관찰 · 추천제 개관

1. 교사 관찰 · 추천제란?
2. 교사 관찰 · 추천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
3. 교사 관찰 · 추천제의 타당성
4. 해외의 교사 관찰 · 추천

1. 교사 관찰 · 추천제란?

달라지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선발 방식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이 종전의 “시험 선발” 방식에서 “교사 또는 영재교사에 의한 관찰 및 추천”방식으로 바뀐다.



Tip

영재교사란?

영재교육관련 연수를 이수하거나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중 영재의 특성, 영재성 진단, 영재평가 등 이론과 방법론을 포함한 전문적인 연수를 받은 영재교육 전문가이다. 영재교사는 학생을 관찰하고, 영재를 발굴하며, 영재교육 추천을 담당하게 된다.

2. 교사 관찰 · 추천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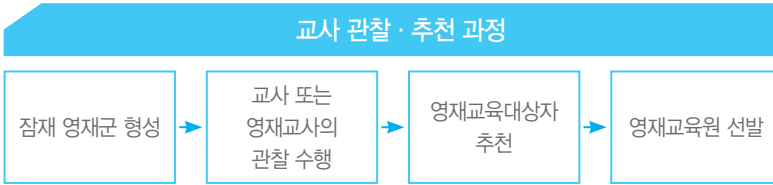
도입 배경

- 1) 종전의 “시험”을 통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은
 - 영재교육원의 입학에 위한 선행학습 및 사교육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 영재성의 중요한 요소인 호기심 및 열정 등 정의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 영재성 및 잠재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현재 성취수준이 낮은 영재들을 영재교육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 2) 교사 관찰 · 추천을 통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식을 통해
 - 특별한 시험결과가 아니라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전반을 주요 추천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영재교육원의 입학에 위한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잠재력은 있으나 영재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숨어있는 영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 영재성 및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즉, 교사 관찰 · 추천제를 통해
 - 영재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한 학생선발 및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 잠재력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영재교육원의 입학에 위한 사교육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관찰 · 추천제 절차



첫째, 잠재 영재군을 형성한다.

담임 또는 교과교사 등이 학교생활 중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잠재적 영재들을 영재 교사에게 의뢰한다. 또한 영재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잠재적 영재들을 발굴한다.

둘째, 교사 또는 영재교사가 잠재적 영재군을 관찰한다.

영재교사는 학교생활에서 잠재적 영재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간다. 또한 영재성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이러한 영재성 관찰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셋째, 영재교육대상자를 추천한다.

학교 소속 교사, 영재교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추천위원회에서 영재교사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영재교육원에 추천한다.

넷째,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원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Tip

학교추천위원회란?

학교별 관찰 · 추천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찰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관찰 · 추천 선발 대상자를 추천하는 일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학교추천위원회는 학교관리자, 영재교육 업무 담당교사, 학급 담임교사,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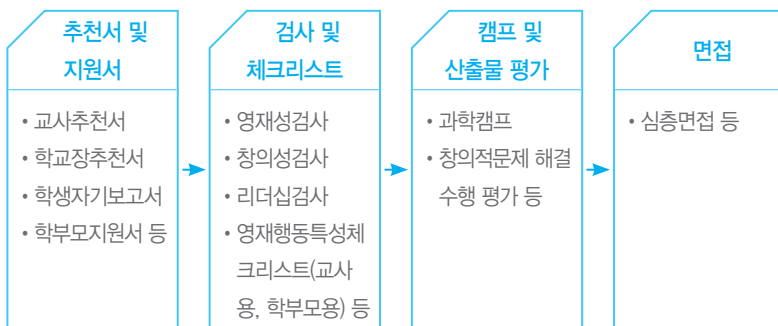
Tip

선정심사위원회란?

영재교육원에서 각 학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 최종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이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해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영재교육전문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육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영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추천위원회를 겸한다.

교사 관찰 · 추천제 선발과정의 준거

교사 관찰 · 추천 선발과정에서는 다양한 준거들이 활용된다.



1) 교사 및 학교장 추천서에서 요구하는 주요 추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영재성 진단 : 지적능력, 창의성, 리더십, 자기주도성, 동기 등
- 특수 학문적성 진단 : 언어, 수학, 과학, 정보과학, 사회과학 등
- 학업성취(내신 성적)

3. 교사 관찰 · 추천제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언론보도

1) 연구결과

- 이인호, 한기순(2009)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서 교사추천의 예측력을 판별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70~80%의 판별 적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Sanborn(1977)
교사의 관찰에 의한 추천방법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영재들의 행동특성을 확인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 Tannenbaum(1983)
영재의 행동특성은 단 한 번의 검사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관찰을 통해서 잘 발견될 수 있으며, 교사가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특성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하도록 할때 보다 신뢰있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Renzulli & Reis(1997)
미국국립영재연구소의 영재판별절차는 전체 영재교육대상자의 약 50%는 표준화된 검사점수로 판별하며, 약 50%는 교사의 관찰 및 추천에 의해 판별된다.

2) 언론보도

- 시험 없이 영재선발(2009. 8. 24 EBS 뉴스)

시험이 아닌 교사 관찰 추천을 통한 영재선발은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영재를 구별해내고, 특목고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영재교육원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선발제도이다. 교사 관찰 추천을 통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영재교육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이 중요하다.

- 선발방식 개선 시급(2008.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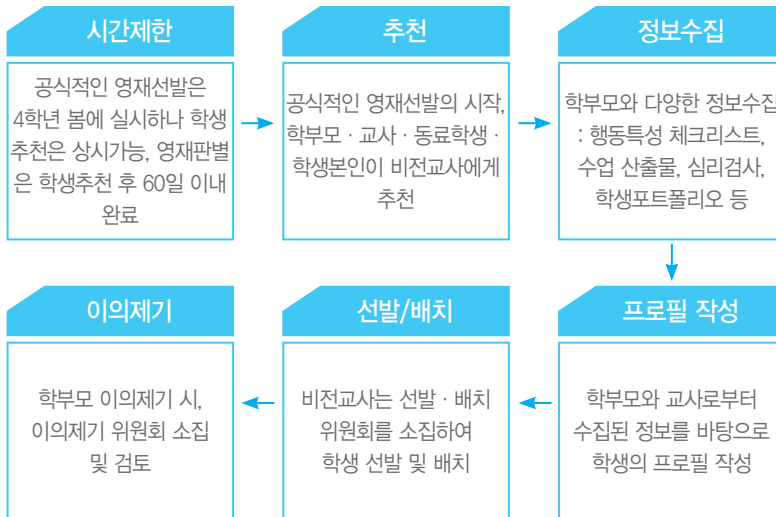
영재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영재교육관련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사교육 효과를 배제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이 중요하다. 현재 학업성취 수준과 시험위주의 선발방식이 아닌 학생의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영재성검사 또는 학생의 과제집착력 등의 동기가 선발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사의 체계적인 학생 관찰 및 영재성 진단을 통한 교사추천방식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4. 해외의 교사 관찰 · 추천제

미국 버지니아 주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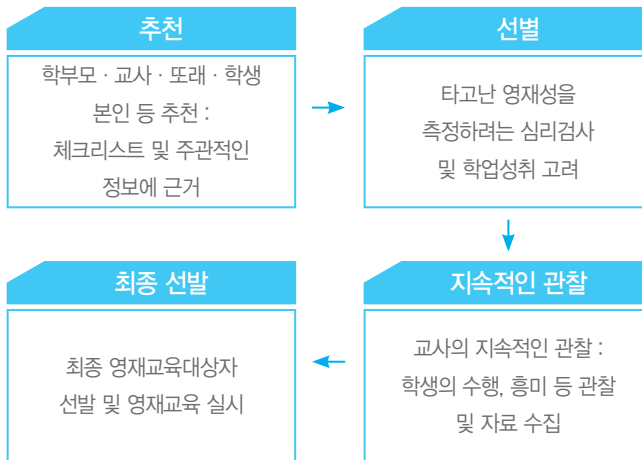
일반 학급교사는 학생의 영재성을 관찰하여 비전교사(영재교사)에게 추천하고, 비전교사는 관찰 및 심리검사, 학부모 정보, 교사 정보 등을 통해 학생의 포트폴리오 및 프로필을 작성한 후, 선발/배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선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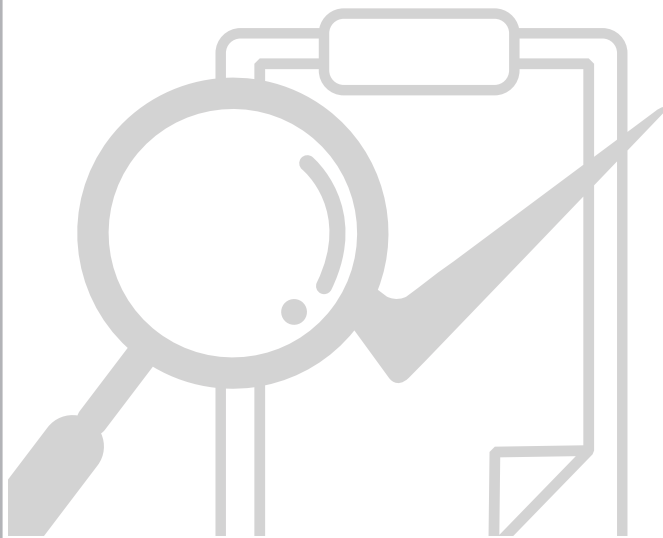


호주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주로 교사의 추천 및 관찰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선발과정은 추천(nomination), 선별(screening), 지속적인 관찰(monitring)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내용

- Q. 교사 관찰·추천 영재선발제도란 무엇인가요?
- Q. 교사 관찰·추천이 과연 타당할까요?
- Q. 교사 관찰·추천제에 문제는 없을까요?
- Q. 교사 관찰·추천으로 공정한 선발이 가능한가요?
- Q. 선발의 가장 첫 단계가 담임교사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Q. 우리 아이가 영재이라고 부모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영재아로서의 특별한 행동을 부적응 현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찰·추천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가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Q.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사가 소신있게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Q. 관찰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며, 학부모가 보는 시선과 선생님이 학생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누구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나요?
- Q. 다른 사람들은 관찰·추천 질문지에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표현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나요?
- Q. 학부모님은 영재교육기간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리한 점만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 리더십, 특성과 재능, 학습 방법, 개인성향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나요?
- Q.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점수를 줬나요?
- Q. 그렇게 짧은 시간 관찰하고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측정할 수 있나요?
- Q. 생활기록부에 학생에게 좋지 않은 진술이 있을 경우, 관찰·추천 및 선발과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 Q. 영재성 검사 이후의 단계를 통해 선발이 결정된다면, 교사 관찰·추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요?
- Q. 아이의 자기소개서는 아이 혼자 써야 하나요? 또 어떻게 써야 하나요?

- Q. 교사 관찰·추천제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원란이 있는데 실제 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 Q. 학부모 관찰·추천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나요?
- Q. 관찰·추천은 어떤 교사가 하게 되나요?
- Q. 전담교사, 비교과 교사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 Q. 관찰·추천 시 교과전담의 추천은 모든 분야에 가능한가요?
- Q. 한 명의 교사가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나요?
- Q.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Q. 영재성 증빙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Q. 교육 과정 내의 영재성 입증자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Q. 선행학습이 관찰·추천에 도움이 되나요?
- Q. 학교 성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 Q. 지원 분야 이외의 내용도 관찰하나요?
- Q. 이미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어도 관찰·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 Q.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무조건 영재로 선발되나요?
- Q. 추천 후 얼마동안 영향력이 지속되나요?
- Q. 소속 교육청 내 학교의 학생이 다른 교육청 영재교육원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Q.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Q. 모든 아이가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Q. 소외계층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 Q. 소외계층대상자 중 그 밖에 사회·경제적으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Q. GED 교사추천선발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Q. 교사 관찰·추천 영재선발제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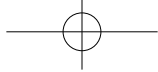
A. 교사 또는 영재교사의 관찰과 이를 토대로 한 추천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을 종전의 '시험 선발' 방식에서 '영재교사에 의한 관찰 및 추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식 위주의 지필 평가 방식이 특정 영재에게 적합하다는 점 외에도 사설학원에서 받은 선행학습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영재성이 있음에도 선행학습의 기회가 없어 판별에서 제외되는 영재가 많다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인 동시에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사회 정의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Q. 교사의 관찰·추천이 과연 타당할까요?

A. 교사들은 평소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사에 의한 관찰은 영재교육을 위한 외국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선발 체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관찰 추천에 의한 선발은 서서히 드러나는 영재들의 행동특성을 확인하기에 특히 적합하기 때문입니다(Sanborn, 1977). 예를 들어, 리더십이나 특정 부분에서의 흥미 등은 단 한 번의 검사나 시험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더 잘 발견 될 수 있습니다.

Q. 교사 관찰·추천제에 문제는 없을까요?

A. 물론 이 방법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들은 정확성, 성실함 등 인정받기 쉬운 학문적 행동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Tuttle & Becker, 1975). 그러므로 교사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에 관한 교사연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는 8%, 대학 및 대학원에서 영재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한 경우 80%, 영재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경우 77.8%로, 영재교육 연수 경력이 있거나 지도 경력이 증가할수록 선발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관찰·추천이 의미있게 진행되려면 교사연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Q. 교사의 관찰·추천으로 공정한 선발이 가능한가요?

A. 교사 관찰·추천제라고 해서 교사 1인의 주관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영재교육대상자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동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추천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천서는 각 학교 내의 학교추천위원회에서 팀평가를 통해 각 영재교육원에 추천되며, 다시 각 영재교육원별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선발이 결정됩니다. 즉, 교사 관찰·추천제는 잠재영재군 형성단계부터 영재교사의 관찰 및 추천, 학교추천위원회에서의 평가 및 추천, 각 영재교육원별 평가를 거쳐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절차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영재교사 1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최종선발이 아닌 공정한 선발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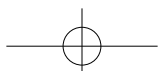
Q. 선발의 가장 첫 단계가 담임교사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A. 교사 관찰·추천제는 학생들을 가장 오랫동안 관찰한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특징을 미처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학부모나 학생에게 영재교육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 두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추천도 열려져 있습니다.

Q. 우리 아이가 영재이라고 부모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영재아로서의 특별한 행동이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찰·추천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가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Q.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사가 소신있게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관찰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며, 학부모가 보는 시선과 선생님이 학생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누구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나요?



|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A. 교사로써 얻은 자료 중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학교추천위원회나 학부모 면담 등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면담 시 특정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예'를 공유하고, 영재 관련 특성이 지속적인지를 파악한 후 추가 면담을 통해 학생이 실제로는 어떤 특성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학부모나 선생님 중 더 많이 반영되는 의견은 없습니다.

Q. 다른 사람들은 관찰·추천 질문지에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표현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나요?

Q. 학부모님은 영재교육기간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리한 점만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 리더십, 특성과 재능, 학습 방법, 개인성향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는 작성자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에 의하면 렌졸리의 체크리스트는 영재와 우수학생, 일반학생 간의 학부모 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자기보고서식 검사라 할지라도 영재아동과 우수아동, 일반아동 간에 변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체크리스트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지 그것이 점수화되어 성적처럼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진솔하게 적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영재교사들은 학부모의 체크리스트나 서술적 보고서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합니다.

Q.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점수를 줬나요?

A. 교사 관찰·추천은 담임교사의 수시 관찰 결과 외에도 학교 영재담당 교사의 학생 개인 탐구보고서, 프로젝트 수행과정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교추천위원회의 팀평가에 의해 다시 해석되고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교사 1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학생의 점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인지시킵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생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의문을 갖는 학부모에게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 내용과 증거들을 토대로 학부모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학부모가 관찰한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들어주며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Q. 그렇게 짧은 시간 관찰하고 우리 아이를 측정할 수 있나요?

A. 각 학교 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중관찰기간은 2~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경우 1학기를 지난 후 2학기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한 학기이며, 학교생활로는 한 번의 순환주기가 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 기간 동안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판별교사가 전문적으로 학생을 관찰하기 때문에 학생의 영재성을 판별하기 위한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Q. 생활기록부에 학생에게 좋지 않은 진술이 있을 경우, 관찰·추천 및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재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행동들로 일견 긍정적인 특성들이어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 장면에서 교사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재의 행동특성에서의 양면성이 드러난 경우,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진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부모 및 학생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영재성 검사 이후의 단계를 통해 선발이 결정이 된다면, 교사 관찰·추천 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요?

A. 교사의 관찰은 학생의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영재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고, 영재성 검사는 객관적인 지표로 정량화하는 도구이므로 두 가지 단계 모두 영재를 선발하는 데 의미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방식의 검사도구는 사전 준비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영재성 검사 도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차츰 영재성 검사도구의 사용도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아이의 자기소개서는 아이 혼자 써야 하나요? 또 어떻게 써야 하나요?

|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A. 자기소개서는 아이 혼자서 솔직하게 써야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출간한 <학부모용 영재교육자료 “행복한 영재, 함께하는 부모 -행복한 영재를 위한 부모교육 지침서-(한기순 외, 2012)”를 참고하세요.

Q. 교사 관찰·추천제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원란이 있는데 실제 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Q. 학부모 관찰·추천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나요?

A. 학생과 학부모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즉, ‘나(우리 아이)의 이리이러한 면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라고 지원을 하면 담당 교사의 의견과 관찰·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학생이 영재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지, 실제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Q. 관찰·추천은 어떤 교사가 하게 되나요?

Q. 전담교사, 비교과 교사도 추천이 가능한가요?

Q. 관찰·추천 시 교과전담의 추천은 모든 분야에 가능한가요?

A. 평소에 담임교사 혹은 교과교사 등이 학교생활 중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잠재적 영재들을 영재교사에게 의뢰 하면, 영재교사가 이들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추천서를 작성하고 추천합니다.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관찰하여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영재교사는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거나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중 영재의 특성, 영재성 진단, 영재평가 등 이론과 방법론을 포함한 전문적인 연수를 받은 영재교육 전문가로 영재교육대상자를 관찰하고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사에게 추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음악 선생님 등 비교과교사도 추천이 가능하지만, 특정 영재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영재를 선발할 때에는 수학 관련 선생님의 추천이 좋겠지요. 따라서 수학, 과학, 예술 영역 교과전담 교사를 담임교사 이외의 추천 교사로 꼽는 것입니다.

Q. 한 명의 교사가 몇 명까지 추천할 수 있나요?

A. 추천 인원수 제한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1명부터 희망자 모두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개별적인 학습자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선호에 따른 산출물을 평가하는 학습자 중심 방법인 포트폴리오와 달리 교사 체크리스트는 교사가 학습자의 성취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교사 위주 평가 방식입니다. 교사 체크리스트는 각 과목별 성취도를 파악하는 과목별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학생의 행동특성 체크리스트, 리더십 체크리스트, 협동심, 문제 발견에서 해결까지 문제해결능력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Q. 영재성 증빙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Q. 교육 과정 내의 영재성 입증자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영재성 증빙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비롯하여 학생의 학습 산출물까지를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내신 성적, 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체험 활동, 탐구활동, 독서 등의 기록물, 개인 또는 집단 면접 내용, 글쓰기와 발표 토론 활동 내역, 과제 수행 결과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 선행학습이 관찰·추천에 도움이 되나요?

A. 관찰·추천 과정에 선행학습 수학의 유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위주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사 관찰·추천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학교 성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A. 학생의 영재성이 학교 성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라면 학교 성적이 높은 학생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학교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라면(예를 들어,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과학에서 공간지각 능력이 필요한 단원에서만 두각을 드러낼 것이므로 전체적인 학교 성적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성이 학교 성적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맹목적으로 반영할 만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Q. 지원 분야 이외의 내용도 관찰하나요?

A. 영재성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발현됩니다. 따라서 지원 분야 외에도 학생의 특성에 관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추천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학생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이미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어도 관찰·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A. 영재교육 수료자(또는 수료 예정자)가 상급학년 영재학급에 다시 추천되려 할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 없이 자동으로 관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추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의 집중 관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무조건 영재로 선발되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단 교사의 추천을 받게 되면, 그 학생의 영재성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관찰 및 면담이 진행됩니다. 담임교사의 추천은 자기 추천이나 학부모 추천과 마찬가지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일종의 후보자 등록의 과정일 뿐입니다.

Q. 추천 후 얼마동안 영향력이 지속되나요?

A. 교사추천이든 자기추천이든 추천은 당해년도 선발과정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니 매해 추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발하는 영재교육원에 따라 지속 기간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영재교육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소속 교육청 내 학교의 학생이 다른 교육청 영재교육원으로 지원가능한가요?

A. 모든 영재교육원의 학생 선발권은 기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재교육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나 서술형 질문에서도 학부모가 학생의 영재유무를 직접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나 서술형 문항에서 물어보는 아이의 특성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학생이 영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일보다 아이의 특성과 강점에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출간된 <학부모용 영재교육자료 “행복한 영재, 함께하는 부모 - 행복한 영재를 위한 부모교육 지침서-(한기순 외, 2012)”>을 참고하세요.

Q. 모든 아이가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재성과 소질 즉 개인적 강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 중 상대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강점으로 나타나는 소질이지 영재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일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체로 그 또래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타고난 능력이나 적성’을 보이면 영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의미는 학자와 국가에 따라 1~15%까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위 1~3% 정도 수준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Part. 3 학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

Q. 소외계층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A.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2항에 의거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원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으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Q. 소외계층대상자 중 그 밖에 사회·경제적으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다문화가족, 저소득층자녀 등이 해당되고, 해당학교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합니다.

Q. GED 교사추천선발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A. GED 교사추천선발시스템이란, 교사추천선발제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양식을 전산으로 제공하여, 각 단계별 추천과 선발 업무의 진행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상의 시스템입니다. 선발 과정 중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할 수 있고 최종 선발자 정보는 GED와 연동되어 입력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상위학교로 진학하여도 학생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추천과정의 많은 양식 작성과 절차가 온라인 상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교사의 업무가 줄어들어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Part. 4

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 Part. 3 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

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내용

- Q. 관찰·추천을 통해 학생을 잠재적 영재군으로 포함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Q. 잠재적 영재군의 학생이 정말 영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을 보고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나요?
- Q. 구체적인 관찰·추천 기준은 무엇인가요?
- Q. 학부모 관찰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Q. 교사가 관찰·추천한 내용을 학부모가 알 수 있나요?
- Q. 교사가 학생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나요?
- Q. GED 시스템에 입력은 정확하게 누가 해야 하나요?
- Q. GED 시스템에 들어 있는 관찰·추천 체크리스트 항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 Q. 관찰·추천 시 학생의 교사추천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Q. 교사는 무엇을 관찰해야 하나요?
- Q. 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Q. 한 학생에게 집중 관찰자가 한 분이어도 되나요?
- Q. 외부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 Q. 2인 이상 추천인데 어떤 교사가 추천하는 게 좋은가요?
- Q. 교사 관찰·추천 시 추천서 등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Q. 교사가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 Q. 관찰을 위한 단계나 평가지표가 있나요?
- Q. 교사 추천의 내용과 학부모, 자기 추천 및 동료 추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Q. 교사추천서, 학생자기소개서, 생기부 등의 점수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교사들마다 학생에 대한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교사들의 추천 의도에 따라 학생의 수준이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학교별 교사의 열성도에 따라 학생의 선발 정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Q. 관찰·추천을 통해 학생을 잠재적 영재군으로 포함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학부모추천, 동료추천, 본인 (담임) 또는 다른 교사의 추천, 외부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혹은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간단한 검사도구 등을 통해 학생들을 잠재적 영재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잠재적 영재군의 학생이 정말 영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을 보고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나요?

A. 평가는 정해진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평소 수업이나 모든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 학생의 평소생활을 관찰하고 영재의 특성 체크리스트에 결과를 기록해 보는 방법(영재의 특성과 체크리스트 참고)
- 학교 수업시간에 관찰을 통한 사례 서술
-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검토
-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캠프에서 관찰
- 산출물이나 프로젝트를 관찰
- 학부모와의 상담 등

Q. 구체적인 관찰·추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영재의 심리적인 특성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재성은 보통 이상의 지적 능력과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집착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수업시간 및 학교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학생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과제집착력 등이 주요 추천 기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호기심과 도전적인 질문, 특정한 과제에 대한 흥미, 열정 및 과제집착력, 창의적인 사고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성,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협동해 나가는 리더쉽 등이 주요 추천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Part. 3 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

Q. 학부모 관찰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학부모의 관찰결과를 해석할 때는, 제시한 영재성의 특징이 가정에서 실제 관찰되었는가, 조기에 나타난 특징들이 또래보다 앞서 있는가, 특징에 따른 사례들이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교사가 관찰·추천한 내용을 학부모가 알 수 있나요?

- A. 학부모는 교사가 추천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천에 사용한 검사 도구의 구성 등은 알 수 있겠지요. 학부모는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만 교사가 해당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Q. 교사가 학생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나요?

- A. 학생이나 학부모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학생을 관찰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즉, 교사가 학생의 추천을 거부한다기보다는 교사가 소신껏 정말 영재라고 생각하는 학생만을 선택하여 추천을 하게 됩니다.

Q. GED 시스템에 입력은 정확하게 누가 해야 하나요?

- A. GED 시스템은 학생 본인, 학부모, 담임교사 또는 다른 교사, 외부전문가 등이 로그인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로그인했느냐에 따라 사용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Q. GED 시스템에 들어 있는 관찰·추천 체크리스트 항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천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먼저 알게 된다면, 학생의 다양한 영재성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관찰·추천 시 학생의 교사추천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해당 영재교육원에서 제시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되 학생을 영재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나다.', '많은 흥미를 보인다.', '이해가 빠르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추천을 하면 학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 수업 시간에 블록 문제에 대해 빠르게 해결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 뛰어났던 경험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교사는 무엇을 관찰해야 하나요?

A. 영재성이 드러나는 영역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등 학생의 영재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을 관찰해야 합니다. 수업태도가 바르거나 숙제를 잘해오는 것 등 모범적 태도보다는 문제를 풀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혹은 특이한 방법으로 푸는 학생의 문제 접근법 등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Part. 3 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

A. 관찰·추천의 장점은 학생이 무엇인가를 준비 또는 연습해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평소 학습 태도나 방법을 통해 학생의 영재성을 발견하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지만, GED 시스템에 자기 추천을 하는 등 최소한의 자기표현은 필요합니다.

Q. 한 학생에게 집중 관찰자가 한 분이어도 되나요?

A. 집중 관찰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므로 한 학생에게 한 명의 집중 관찰자가 있다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Q. 외부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A. 도움을 받을 만한 외부 전공자가 있다면 부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외부 전공자가 현재 학교의 상황과 학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추천을 해야 하는 교사와 충분히 의사소통하셔야 합니다.

Q. 2인 이상 추천인데 어떤 교사가 추천하는 게 좋은가요?

A.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추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담임교사와 과목 시간이 많은 주요과목 교사가 추천하기를 권장합니다.

Q. 교사 관찰·추천 시 추천서 등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해당 학생을 영재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학생의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사가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A. 추천 인원수 제한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1명부터 희망자 모두 등으로 다릅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Q. 관찰을 위한 단계나 평가지표가 있나요?

A. 표준화되어 정해진 단계나 지표는 없습니다.

Q. 교사 추천의 내용과 학부모, 자기 추천 및 동료 추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사의 추천 내용 중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추천 위원회나 학부모 면담 등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면담 시 특정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예'를 공유하고, 영재 관련 특성이 지속적인지를 파악한 후 추가 면담을 통해 학생이 실제로는 어떤 특성에 가까운지 확인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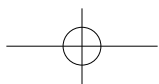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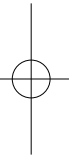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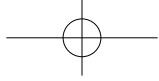
Q. 교사추천서, 학생자기소개서, 생기부 등의 점수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도·교육청별로, 또는 각 영재교육원별로 학생의 자료를 정량화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교육청이나 영재교육원에 문의하세요.

| Part. 3 교사들이 자주 하는 질문 |

Q. 교사들마다 학생에 대한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교사들의 추천 의도에 따라 학생의 수준이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학교별 교사의 열성도에 따라 학생의 선발 정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A. 교사가 학생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은 해당 학생의 학습권이나 진로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영재라고 추천한 근거가 추천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열성 정도와는 무관합니다.



연구자료 CRM 2012-14-7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 · 추천제 바로알기

- 교사 · 관리자 안내자료 -

발행	행	2012년 2월
발행인	인	김 태 완
발행처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소	서울 서초구 바우뫼길 220-1
전화	화	(02) 3460-0114
팩스	스	(02) 3460-0148
		http://www.kedi.re.kr
등록	록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쇄	쇄 처	(주)현대아트컴 (02) 2266-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